DAY 56 · 6부 앞으로

# AGI는 이미 왔을까, 아직 멀었을까 — AGI 논쟁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1월 1일

AGI가 왔냐 아니냐는 AI한테 묻는 질문이 아니라,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우리 쪽 질문이야.

# 한 줄로 말하면

1. 둘 다 맞다고 말할 수 있어. **'어디까지 해내야 AGI인가' 하는 기준선**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, 지금 AI가 통과이기도 하고 미달이기도 하거든.

2. 기준을 낮게 — '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면 AGI' — 잡으면 이미 통과야. 1950년 튜링이 낸 기준이 그쪽에 가까웠고, 지금 AI는 **어려운 시험 문제를 사람 평균보다 잘 푼 경우도** 나왔어.

3. 기준을 높게 — '처음 보는 일을 스스로 배워서 끝까지 해내면 AGI' — 잡으면 아직이야. 2026년 3월 나온 새 시험에서 **사람은 다 맞힌 문제를 AI는 거의 못 맞혔거든**.

# 기준선을 낮게 그을 때 vs 높게 그을 때

### 기준을 낮게 · 이미 통과

· 말이 통하면 합격 (1950년 튜링)
· 어려운 시험도 척척 푼다
· 'AGI는 이미 왔다'

→

### 기준을 높게 · 아직 미달

· 처음 보는 일을 스스로 배워야
· 끝까지 해내야 합격
· '아직 한참 남았다'

양쪽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. 자를 어디에 대느냐가 다를 뿐이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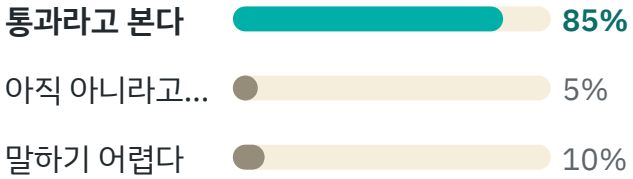
**핵심: AGI 논쟁은 AI 실력 다툼이 아니라 '기준선' 다툼이다**

실험 · 확률 슬라이더

# 'AGI 기준'을 어디에 둘까 — 손잡이를 옮기면 답이 바뀐다

## 기준: 사람처럼 말이 통하면 AG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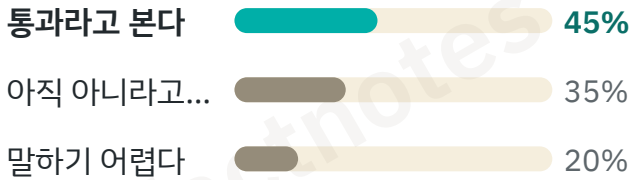
**이 기준이면 지금 AI를 어떻게 부를까?**




1950년 튜링이 낸 기준이 이쪽이야. 속을 들여다보지 말고 겉으로 드러난 대답만 보고 판정하자는 거지. 이 기준이면 지금…

## 기준: 어려운 시험 문제를 사람만큼 풀면 AG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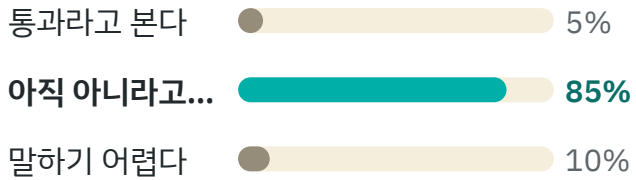
**이 기준이면 지금 AI를 어떻게 부를까?**




시험으로 재면 답이 갈려. 실제로 2026년 2월 한 모델은 사람 평균이 60%인 퍼즐 시험에서 84.6%를 받았어. 그런데…

## 기준: 처음 보는 일을 스스로 배워 끝까지 해내면 AGI

**이 기준이면 지금 AI를 어떻게 부를까?**




설명서 없이 새 규칙을 알아내는 시험(ARC-AGI-3)에서는 2026년 3월 공개 당시 사람 100% · AI 0.51%였…

손잡이를 왼쪽에 두면 기준이 낮고, 오른쪽에 두면 기준이 높아. 막대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, 기준을 옮기면 답이 어떻게 갈리…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56/

확인해보기

# 세 문제만 풀어 보자

**Q1**

## AGI를 두고 답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?

① '어디까지 해내야 AGI인가' 기준이 달라서
② AI 성능을 아무도 못 재서
③ AI가 매일 바뀌어서
④ 숫자를 일부러 숨겨서

**Q2**

## 기준을 '처음 보는 일을 스스로 배워 끝까지 해내기'로 높이면 지금 AI는?

① 여전히 여유롭게 통과
② 아직 미달이라는 쪽이 훨씬 많다
③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
④ 사람보다 항상 낫다

**Q3**

## 'AGI 왔다'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물어볼 것은?

① 누가 말했나요
② 값이 얼마인가요
③ 기준이 뭔가요
④ 언제 나왔나요

# 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① 같은 AI를 놓고도 자를 다르게 대면 판정이 달라져. 그래서 AGI 논쟁은 실력 다툼이라기보다 기준선 다툼에 가까워.

Q2

② 설명서 없이 새 규칙을 알아내는 시험에서는 사람이 다 맞힌 문제를 AI는 거의 못 맞혔어. 실제 일을 통째로 맡긴 시험에서도 끝까지 해낸 비율은 아주 낮았고.

Q3

③ 기준을 모르면 같은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쓰게 돼. 기준부터 확인하면 논쟁이 훨씬 또렷해져.

# AGI가 왔냐 아니냐는 AI한테 묻는 질문이 아니라,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우리 쪽 질문이야.



내일은 AI와 직업 — 한 가지 일을 조각내 보면, 어느 조각이 AI 몫이고 어느 조각이 사람 몫인지.